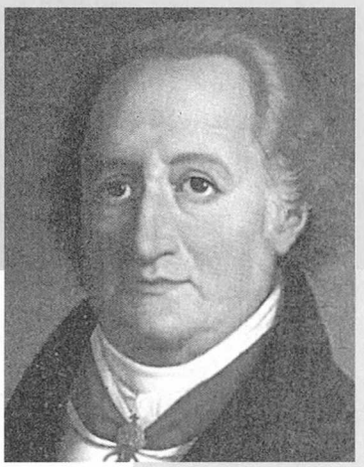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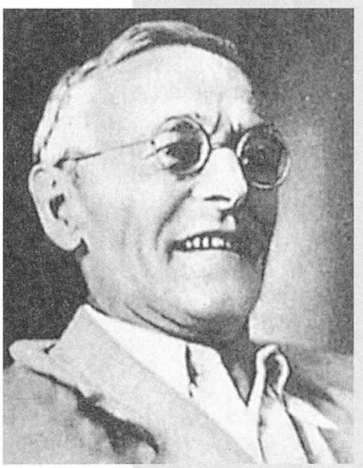
자아와 사회에 눈떠가는 인간 내면의 편력기

존재의 시간성 부각시킨 독일문학에서 발달… 자아인식과 인생체험 과정 그려

안삼환 | 서울대 독문과 교수

성장소설은 어린 주인공이 자아를 의식하고 세계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성장소설은 특히 독일문학에서 발달했는데, 이는 독일인들이 존재의 시간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성장소설에서 인생에 대한 심도 있는 체험과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존재를 생성의 과정으로 보고 세계를 시간의 전개로 해명하려는 독일인의 성향에서 성장소설은 비롯했다. 위로부터 성장소설을 썼던 작가인 괴테, 헤세, 토마스 만.

성장소설은 일반적으로 어린 주인공이 자아를 의식하고 차츰 외부세계와의 접촉 또는 대결을 해 나가는 가운데 그의 자아가 인간세사의 운행법칙을 깨우쳐 세계 속에서 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을 말한다.

교양소설의 전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성장소설은 특히 독일문학에서 발달했는데, 이는 독일인들이 세계를 파악할 때 존재의 시간성을 즐겨 부각시키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민족성을 따지는 시각 자체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인들이 화가를 많이 배출해 공간예술에 특장을 보인 반면, 독일인들이 시간예술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해낸 것은 사실이다.

독일어권 문화가 헨델 · 바흐 · 하이든 · 베토벤 · 모차르트 · 슈베르트 · 슈만 등 많은 음악가를 배출하고 특히 많은 교향곡을 문화유산으로 갖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존재를 생성(Werden : 동사 '되다'의 명사형)의 과정으로 보고 세계를 시간적 전개로 해명하려는 것이 독일인들의 일반적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싶다.

소설에도 유독 시간예술적 소설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모파상의 〈목걸이〉는 목걸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그림에 가까운 반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소년 에밀 싱클레어의 성숙과정을 서술함으로써 그 본질상 그림보다는 음악에 좀더 가깝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장소설이라고 부르지만, 성장소설의 원산지인 독일문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자연히 '교양소설'(Bildungsroman)이란 개념과 만나게 된다. 원래 '교양'(Bildung)이라 할 때의 'Bildung'은 동사 '형성하다'(bilden)의 명사형으로서, 한 인간의 자아 '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양소설은 한 인간이 유년시절부터 청년기를 거쳐 장년기, 또는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한 인격체로서 성숙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을 말하는데, 독일문학사에서 전범으로 꼽히는 교양소설은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rhe)다.

괴테는 이 작품에서 상인의 아들인 빌헬름이 어떻게 유년기의 주관성에서 벗어나고, 체험을 통해 깨달음의 과정을 거친 다음, 사회와 화해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있다. 교양소설의 주인공들이 흔히 걷는 주관성의 탈피, 외부와의 접촉 및 대결, 그리고 사회와의 화해라는 3단계 도식을 괴테의 교양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의 주인공 빌헬름의 궤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상인의 아들인 빌헬름은 유년시절에 인형극에 심취해 문학의 세계에 깊이 빠져든다. 청년시절에 접어들어 그는 집안의 희망에 따라 상인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던 중 여배우 마리아네를 사랑한다. 그는 편협한 시민계급적 삶을 과감히 버리고 마리아네와 더불어 연극의 세계로 달아나기로 결심한다.

연극과 시민사회 사이의 방황

인간의 삶에서 흔히 관찰되는 청년의 과잉정열과 부주의 때문에 빌헬름 역시 첫사랑에 실패하고 잠시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그는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연극을 완전히 잊지 못하다가 업무 여행 중 어느 유랑극단을 만나 다시 연극과 관계를 맺는다.

이 극단에서 그는 의리있고 남성적인 배우 라에르테스,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여성 필리네, 그녀를 사모해서 따라 다니는 소년 프리드리히, 이국적 외모와 신비적 침묵에 휩싸여 있는 남장 소녀 미뇽, 남모르는 비극을 홀로 감내하면서 고독한 유랑을 하고 있는 하프 타는 노인 등과 한 동아리를 이뤄, 그들과의 인연을 결연히 끊고 시민사회로 복귀하기를 주저한다.

유랑극단과 함께 어느 백작의 성에 도착한 그는 귀족들의 여흥을 위해 연극을 공연하는 데 참여했다가 귀족들의 노리개에 불과한 궁정연극의 허상을 통찰한다. 유랑극단이 귀족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자 단원들은 백작의 성을 떠나야 했고, 그들이 새로운 일터를 찾아 도회로 이동해 가던 중 숲속에서 강도를 만난다.

서로 총격전을 벌이다가 부상을 입은 빌헬름은 비몽사몽간에 마치 '아마존'처럼 생긴 한 아름다운 여성의 자비로운 배려와 보호를 받지만, 그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그 여인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

인생의 수업시대였던 연극의 길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항상 남몰래 가슴에 간직한 채 그는 평소 잘 알던 연극인 제를로를 찾아가 그의 극단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공연에 참여하고, 또한 자신이 직접 햄릿역을 맡아 연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인형극에서 유랑극단, 궁정극장, 시중 공연극에 이르기까지 연극의 온갖 경로를 두루 거치면서 그가 결국 깨닫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나의 '그릇된 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자신은 알지 못하는 운명, 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를 주목하고 있던 비밀결사 '탑의 모임'의 인도에 따라 개혁귀족 로타리오의 성까지 흘러온 빌헬름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전부로 생각했던 '연극'이 그의 인생 전체에서 일종의 수업시대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는다. 또한 그는 마리아네에 대한 첫사랑이 마리아네의 배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으며, 마리아네는 그의 유복자 펠릭스를 낳다가 외롭게 죽은 사실을 알게 되고, 펠릭스가 그 자신의 아들이며 자신이 이제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임을 자각한다.

이 무렵, 그는 오랫동안 마음 속에 그려오던 '아마존' 여인 나탈리에를 만나고 그녀의 사랑을 얻는다. 시민계급 출신의 한 평범한 청년 빌헬름이 귀족출신의 처녀 나탈리에를 얻게 된 것이다.

"당신을 보면 난 웃지 않을 수 없어요. 당신이 기스의 아들 사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왕국을 얻게 된 그 사울 말입니다."

방황을 통한 인간성의 완성

프리드리히가 빌헬름에게 하는 이 말은 빌헬름의 교양과정이 사울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노력하는 한 과오를 범한다"는 《파우스트》의 한 구절처럼 많은 방황을 거치며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사실을 논거로, 빌헬름에게 처음부터 뚜렷한 '교양목표'(Bildungsziel)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그리고 작품의 끝에 가서 빌헬름이 이른 곳도 독일 고전주의의 인간성 터득이라는 이상과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조차도 교양소설로 보기 어렵다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계급 출신인 주인공 빌헬름이 여성 편력을 거쳐 마지막에는 결국 귀족신분인 나탈리에와 결합하는 이 소설의 결말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진부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프랑스혁명 직후인 1795년경의 독일사회를 향한 작가 괴테의 발언으로 보는 독법이 필요하다. 당시 독일 신분사회의 장벽을 뛰어넘는 이 결혼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병든 왕자'에 대한 왕녀의 사랑처럼 나탈리에의 이해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프랑스대혁명 이후 독일사회에 상존하고 있던 계급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기도 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빌헬름의 교양과 나탈리에의 인간애, 즉 시민계급의 교양수업과 귀족계급의 양보 및 자기개혁이란 괴테의 메시지가 제시돼 있다.

자아와 사회를 향한 눈뜸

고트프리트 켈러의 《푸른 조끼의 하인리히》 등 괴테 이후 나온 19세기 독문학의 수많은 소설들은 거의 모두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전범으로 한, 인간의 성장과정을 그린 교양소설의 양상을 띤다. 뿐만 아니라, 20세기에 나온 토마스 만의 《마의 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등도 교양소설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교양소설이라 부르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양소설에는 괴테시대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이상, 즉 교양 이상이라는 문학사적 여운이 아직도 따라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양소설이라는 역사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개념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별로 부담이 없는 '발전소설'(Entwicklungsroman)이란 초시대적 개념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아예 독문학사의 냄새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성장소설이란 중립적 개념을 즐겨 쓰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성장소설은 독일문학이 세계문학에 기여한 큰 공헌 중의 하나다. 성장소설의 독자는 주인공이 자신의 자아에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자아에 개안하고, 주인공이 주위 세계와 접촉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주인공이 사회와 화해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과 동시에 세계와 화해하며 인간의 길을 찾아가게 된다. 성장소설의 독자는 주인공의 성장과 더불어 자신도 성장해 간다. 성장소설은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심도 있는 체험과 포괄적 인식을 선사한다.●